

고리4호기 이용률 세계 2위

-영국 원자력전문지 「NEI」가 발표-

고리원자력 4호기가 세계에서 가동중인 15만 kW이상 362기의 원전가운데 이용률 2위를 차지하였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원자력 전문지 NEI(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11월호에 의하면 '92년 7월 1일부터 '93년 6월 30일까지의 연간 이용률이 가장 높은 원전은 스위스의 베즈나우 2호기이고 우리나라의 고리 4호기가 이용률 100.1%로

2위를 차지 했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고리 2호기(28위), 고리 3호기(56위), 울진 2호기(64위), 월성 1호기(68위), 울진 1호기(73위), 영광 2호기(88위), 고리 2호기(102위), 영광 1호기(103위)로 우리나라에서 가동중인 9기 가운데 7기가 모두 100위권내에 기록되어 국내원전 운영능력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NEI지가 발표한 연간 이용률 상위 10위까지의 원전은 다음과 같다.

순 위	발 전 소 명	국 명	노 형	설비용량(천 kW)	이용률(%)
1	베즈나우-2	스위스	가압경수로	364	100.5
2	고리-4	한 국	〃	950	100.1
3	피커링-7	캐나다	가압중수로	540	99.9
4	캘러웨이-1	미 국	가압중수로	1,219	97.9
5	피커링-8	캐나다	가압중수로	540	97.6
6	서스크헤너-1	미 국	비 등 수 로	1,085	97.0
7	팔로버드-1	미 국	가압경수로	1,307	97.0
8	젠카이-2	일 본	〃	559	96.4
9	이카다-2	일 본	〃	556	96.3
10	도마리-2	일 본	〃	579	96.1

한전, 원전기술 중국에 수출

-우리나라 전력기술 사상 최초-

우리나라의 전력기술이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되게 되었다.

이종훈 한전사장은 지난 12월 21일 광동원전합영유한공사 잔운룡 사장과 광동성 현지에서 '94년 1월부터 2년간 광동우너전의 정비기술을 지원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전은 이 계약에 따라 직원 13명이 중국 현지에 상주하면서 광동 1,2호기의 기술 지원, 정비수행, 긴급복구 등의 용역을 제공

하게 된다. 기술료는 실비정산방식으로 받게 되는데 2년간 약 420만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동원전측은 광동원전의 준공이 임박함에 따라 발전소 운영 및 정비에 부족한 경험과 기술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우수한 원전운영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 전력의 기술지원을 원하여 왔다.

90만 kW짜리 2기인 광동원전은 울진 1,2호기와 같은 모형으로 1호기는 '93년 12월에 준공되었으며, 2호기는 오는 6월에 준공예정 으로 있다.